

부동산·논문 놓고 날선 공방 예고

■ 막으려던 인사청문회 2월국회 화약고 되나

오늘 윤증현·9일 현인택·10일 원세훈 청문 與 “당리당락 안돼” 野 “도덕적 문제도 추궁”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시작되면서 2월 임시국회 초반부를 뜨겁게 달궈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자를 시작으로 9일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1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이달 곧 행정안전부 내정자의 경우 여야간 이견으로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경권 원내대변인은 5일 구두논평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당리당락의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며 또다시 국정 발목 잡기를 시도할 경우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장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MB정부 1기 내각의 총체적 평가와 함께 2기 국정 철학을 검증하면서 도덕적 문제도 철저히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내정자=경제정책의 큰

트를 타위로 위기 극복을 책임질 적임자인지 인사청문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지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내정자의 부인이 지난해 8월 매입한 양평군 토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실제 경자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재지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내정자의 자녀가 주택을 구입한 자금 출처와 관련, 편법증여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으며 병역면제 경위도 추궁할 계획이다.

◇현인택 내정자=우선 현 내정자는 부인이 운영하던 제주시 연동 8운수의 대지 165㎡를 2006년 제3자를



“반대하는 방법 고민하자” 5일 국회에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13회 민주정책포럼에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강연을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경청하고 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야당이) 늘 반대만 하면 국민은 피곤하다”면서 “반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통한 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사실과 관련, ‘변칙증여’ 의혹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 내정자가 2001년 안식년을 맞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하다 본인 귀국에 앞서 그해 12월 말 자녀의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세훈 내정자=민주당은 현재 정자가 넘어야 할 산이다. 우선 1995

년 2월 국가문제조사연구소가 발행한 ‘정책연구’와 이듬해 11월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전략연구’에 미·일간 산업·군사 기술 관련 마찰 실태와 관련한 현 내정자의 유사 논문이 각각 게재되는 등 상당수의 논문이 중복 게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내정자=민주당은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인 원 내정자가 용산

사고 책임자라는 이유로 파면을 요구하며 과상공세를 퍼부어 태세다. 민주당은 ‘원 내정자 인선이 ‘TK(대구·경북), S라인(서울시청 출신)’ 측근 인사의 대표적 케이스이며 국정원 근무경험이 없다’는 점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이들의 군복무과정에 대한 의혹도 재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거부 과태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 법개정 건의

전국 광역시·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5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2009년도 제1차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실시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키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국정감사와 달리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했을 때 벌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재 수

단을 법령에 규정하도록 국회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의회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의회 정책포럼’을 구성키로 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 구성 문제는 어려운 경제 사정과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방의회 인턴제 도입 건의도 일단 유보하고 지자체의 시행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서구 감 정응할·북구갑 서세일씨

한, 당협위원장 9명 임명

전 위원장 대리인 대부분

한나라당이 5일 공석인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에 정응할(직전 정응화 청와대 비서관) 운영위원, 북구갑 당협위원장에 서세일(직전 이기연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씨 등 9명을 각각 임명했다.

공석 중인 광주 광산을,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함평·영광·장성 등 전남지역 당협위원장 4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께 확정할 방침이다.

윤성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오늘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의 임명안 의결이 있었다”며 김영호 국회의장 지역구인 부산 영도를 비롯해 9개 지역 위원장 임명안을 발표했다.

김 의장 지역구에는 이윤식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영도구 지회장이 임명됐고, 김해수 청와대 정부비서관과 연관있는 인천 계양갑에는 박봉우 제17대 대선 계양갑 선대위 고문이 확정됐다.

또 울산 울주는 강길부(직전 이체

익), 경기 안산·단원갑 심정주(직전 허승), 강원 태백·영월·평창 정선 이준연(직전 최동규), 충북 충주 이충희(직전 윤진식), 충남 천안갑 박종인(직전 전용학), 충남 홍성·예산 한기권(직전 홍문표)씨 등도 함께 임명했다.

그러나 이번엔 임명된 부산 영도, 인천 계양갑, 충북 충주, 광주 서구갑, 광주 북구갑 등 당협위원장 대부분은 전 위원장의 대리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기연 전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코레일개발 대표에서 코레일네트웍스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가 합병돼 지난 1일 출범한 코레일 계열사다.

▲정응할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 = △광주 인성고 △전남대 독어독문과 △제17대 대선 경선 문화 행동포럼 이사 △광주 서구갑 운영위원

▲서세일 광주 북구갑 당협위원장 = △광주 인성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퇴 △제17대 대선 광주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증현 “올 플러스 성장 쉽지 않다”

“부동산 가격 당분간 하락세 지속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5일 “현재 경제 흐름이 지속된다면 애초 정부의 2009년 성장 목표(3%)는 물론 플러스 성장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올 경제성장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내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경

제지표 변화 추이 및 각 기관의 경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앞으로 경제전망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하지만 “다만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윤 내정자는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민간택지분

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대 부동산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투기지역 조정 등을 통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며 “전면 완화하는 것은 시장상황과 금융 건전성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 윤 내정자는 “일각에서는 속도감이

다소 떨어진다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속도감 있게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공기업 10% 감원문제에 대해 “경영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력감축은 자연감소,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감소되는 인력의 일정비율은 신규채용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공천배제 안돼” 민주 이미경 사무총장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5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4월 재선거 출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천 배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 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당은 정 의장 본인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고 당의 발전을 위해 이런 중요한 분들의 힘을 어떻게 모아낼지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 의장의 출마 여부는 “당과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을 찾아야 하며, 어떤 결론이 나온 본인이 당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따라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작심삼일 NO!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꼭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 | | | | | | | | |
|-------------|----------|-------------------|------------|----------|------------|--------|----|
| 목포상공회의소 | 회장 주영순 | (주)부경일레콤 대표이사 임영춘 | 목포인터넷어울센터 | 대표이사 임지현 | 일동목포의료원 | 원장 임지현 | 일동 |
| 보해양조(주) | 대표이사 임진우 | 옥주건설(주) 대표이사 김영권 | KT목포지사 | 대표이사 임직원 | 일동한국병원 | 원장 임지현 | 일동 |
| (주)행남자기 | 대표이사 김용주 | 정승건설(주) 대표이사 조인형 | 한국전력공사목포지점 | 대표이사 임직원 | 일동학교법인중앙병원 | 원장 임지현 | 일동 |
| (주)상그리아비치호텔 | 대표이사 노희용 | (주)부국건설 대표이사 이상현 | 한국농수산공사 | 대표이사 임직원 | 일동목포기독병원 | 원장 임지현 | 일동 |
| | 대표이사 임직원 | (주)보경전기 대표이사 이상선 | 영산강사업단 | 대표이사 임직원 | 일동미즈아이병원 | 원장 임지현 | 일동 |
| | 대표이사 임직원 | (유)한개발 대표이사 이훈민 | 전남목포지부 | 대표이사 임직원 | | | |